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미국 경제 성장 가속화.. 둔화 예상 펼쳐버려
- WSJ: 연준, 금리 0.25% 추가 인상... 22년래 최고치
- Global News: 미 내구재 주문 4개월 연속 상승세

#### [미국 금융]

- WSJ: 미국인 상당수 부채는 현재 초저금리 적용 받아
- WSJ: WSJ 논설: 미국은 선택: 이민자 수용인가 실패인가

#### [뉴욕]

- Bloomberg: 미국인 절반이 폭염에 시달려... 뉴욕시는 연중 최고 기온

#### [에너지]

- CNN Business: 미국 가솔린 가격,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Bloomberg: 유가 80불 넘어섰다... 미국 경제 예상외 성장 탓
- CNBC: IEA “작년 석탄 사용량 사상 최고치, 글로벌 수요 계속 지속 예상”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GM 등 7개 자동차사 “전기차 충전소 3만 개 구축”
- Bloomberg: 맥도날드, 2분기 실적 좋았지만 향후 성장 둔화 예상
- WSJ: Netflix, MS 계약 재조정해 광고 가격 낮춘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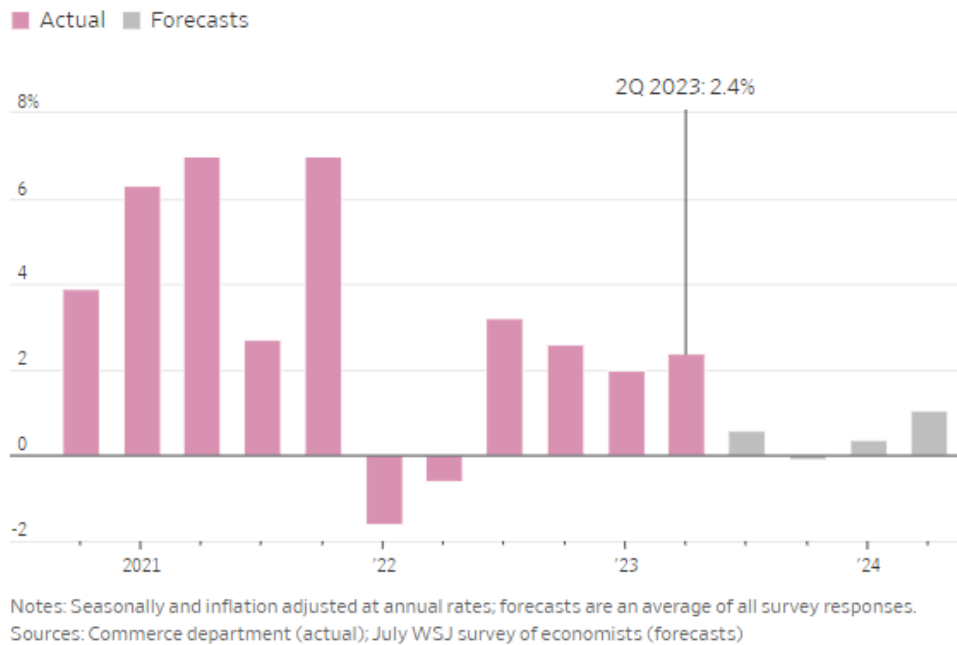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WSJ: U.S. Economic Growth Accelerates, Defying Slowdown Expectations

##### 미국 경제 성장 가속화.. 둔화 예상 펼쳐버려

- 미 올해 분기 GDP가 2.4% 성장,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준이 어제 수요일 0.25% 금리를 추가 인상했음에도 침체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GDP가 올해 1분기 연 2%에서 2분기에 계절 조정 수치와 인플레이 조정수치로 연 2.4% 성장했다.
- 올 봄 소비자 지출은 늘었지만 상품과 서비스 모두 증가율은 느린 속도였다. 4월부터 6월까지 즉, 2분기 기업 투자는 강했으며, 기업들은 건물과 장비에 견조하게 지출했다.
-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재고를 확대했다.

## Real GDP, change from previous quar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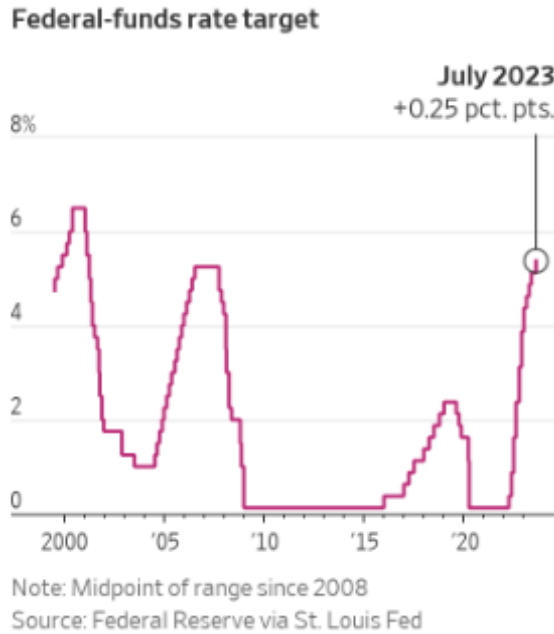


WSJ 기사

## WSJ: Federal Reserve Raises Interest Rates to 22-Year High

## 연준, 금리 0.25% 추가 인상... 22년래 최고치

- 연준은 예상대로 어제 수요일 연준 금리를 0.25% 인상시켜 금리가 지난 22년래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 금리는 5.25%와 5.5% 사이.
- 관심사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다.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향후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지 안 할지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즉,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겨놓은 셈이다.
- 그는 앞으로 수개월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다.



WSJ 기사

**GlobalNews: U.S. Durable Goods Orders Jump for Fourth Straight Month**  
**미 내구재 주문 4개월 연속 상승세**

- 미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구재는 전자제품, 컴퓨터, 자동차, 제조품 등 3년 이상 사용되는 제품이다.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에 비해 4.7% 증가해 계절 조정치로 3천25억불이라고 밝혔다. 5월에는 전월에 비해 조정치로 2% 상승했다. 월스트리트 설문 조사에서 6월 상승률을 1.5%로 보았는데 예상외의 큰 상승세.
- 국방 관련 제품을 제외할 경우 신규 주문이 6.2% 증가했다. 특히 교통 장비 주문은 12% 이상 늘어 신규 주문을 이끌었다. 운송 장비s를 제외한 신규 주문은 0.6% 올랐다.
- 비즈니스 투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이른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부문 자본재 신규 주문은 5월 보다 0.2% 늘어난 7백40억 8천만불 이었다.

Global News 기사

**[미국 금융]**

**WSJ: What Fed Hikes? Much of America’s Consumer Debt Is Still Riding Ultralow Rates**  
**미국인 상당수 부채는 현재 초저금리 적용 받아**

- 요지: 소비자 부채의 큰 부분이 여전히 2022년 이전에 이루어진 고정 금리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같은 이륜 대출의 금리가 증가해 미국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 부채의 상당 부분이 2022년 이전에 낮은 이자율로 유지되고 있다.
- 즉,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이상 미국인들의 모기기 및 자동차 대출과 같은 부채는 초저금리의 적용을 받고 있다.
- 따라서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들이 소비를 지속할 수 있었고,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
- Moody's Analytics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 지급된 가계 부채중 11%만이 기준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Share of household debt that adjusts with market interest rates



Source: Moody's Analytics

Required household debt service payments as a percent of disposable personal income



Source: The Federal Reserve

WSJ 기사

**WSJ: America's Choice: Immigration or Bust**

**WSJ 논설: 미국은 선택: 이민자 수용인가 실패인가**

- 핵심은 한마디로 오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 6백만명의 노동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작년과 비교해서다.
- 미국의 문제는 인력 문제다. 해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 이번주 발표될 논문은 2040년까지 해당 인력이 6백만명 줄어든다.
- 물론 일부 미국인은 외국 인력을 값싼 경쟁자로 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고용 인력 증가 숫자의 거의 절반은 외국인 출신 근로자다. 그러나 이 기간 미국 출생 근로 연령층 숫자도 크게 늘었다.
- 현재 미국은 인구 관련 문제점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고, 베이비부머가 오래 상고 일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점이다.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조차도 인력부족으로 경제 성장에 도전이 되고 있다.

- 캐나다 정부는 적극적이어서 최근 미국에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고임금 H-1B 신청을 허용해 1만명의 신청자가 이틀만에 채워졌다.
- 결론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인정해야 미국과 미국인들에 좋은 것이다.

WSJ 기사

**[뉴욕]****Bloomberg: NYC Sweats Through Hottest Temperature of the Year With Half US Facing Excessive Heat****미국인 절반이 폭염에 시달려... 뉴욕시는 연중 최고 기온**

- 미국인 절반이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뉴욕시와 동북부 지역은 연중 가장 높은 기온을 맞고 있다.
- 오늘 목요일 뉴욕시 최고 기온은 90도 중후반, 습도 온도는 106F(41C)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말했다. 워싱턴의 최고 기온은 화씨로 오늘 목요일 99도, 금요일 100도로 예상되며, 뉴저지 뉴왁은 양일간 98도, 필라델피아는 각각 97과 9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동부는 오늘 목요일 오후 뇌우(thunderstorm)가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에너지]****CNN Business: US gas prices climb to an eight-month high****미국 가솔린 가격, 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미국 가솔린 가격이 급등했다. 폭염에다 생산량 제한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 AAA에 따르면 미국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71불로 2센트 올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휘발유 가격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이러한 급등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고, OPEC+가 생산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현재 석유 공급을 억제해 유가를 올리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Oil Rallies Above \$80 as US Economy Grows More Than Expected****유가 80불 넘어섰다... 미국 경제 예상외 성장 탓**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Intermediate oil) 선물이 올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불을 넘어섰다.
- OPEC+의 생산량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이 긴축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유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휘발유 가격 급등 등 세계 경제에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급을 9월까지 계속 하루 1백만 배럴 줄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생산량을 제한해 향후 몇 달 동안 원유 공급 부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BC: IEA says coal use hit an all-time high last year — and global demand will persist near record levels**

**IEA “작년 석탄 사용량 사상 최고치 , 글로벌 수요 계속 지속 예상”**

- 작년 석탄 소비량이 3.3% 증가한 83억 톤을 기록했다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오늘 목요일에 발표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이다.
- IEA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석탄이 가스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 작년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36%가 석탄에서 생산 되었다. IEA는 올해 석탄 소비량이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G.M. and Other Automakers Will Build 30,000 Electric Vehicle Chargers**

## GM 등 7개 자동차사 “전기차 충전소 3만 개 구축”

- 7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국 내 급속 충전소 수를 약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 BMW, GM, Honda, Hyundai, Kia, Mercedes-Benz, Stellantis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과 캐나다 주요 고속도로에 3만 개의 충전 포트를 건설하기 위해 약 10억 불 투자할 예정이다.
- 미국과 캐나다에는 고속 충전기가 약 3만 6천 개 있다. 이는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전기차 충전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주요 원인이다.

NYT 기사

## Bloomberg: McDonald's Sales, Profit Beat Estimates as Diners Flock to Chain

### 맥도날드, 2분기 실적 좋았지만 향후 성장 둔화 예상

- 맥도날드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매출을 발표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매장 매출은 해당 분기에 11.7%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9.4%를 상회한 수치이다.
- 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이 가격 인상률 감소로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고객들의 임의재 지출은 제한되고 되어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정상화 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최고 재무 책임자 Ian Borden이 말했다.

Bloomberg 기사

## WSJ: Netflix Reworks Microsoft Pact, Lowers Ad Prices in Bid for Growth

### Netflix, MS 계약 재조정해 광고 가격 낮춘다

- 넷플릭스는 MS와의 광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재조정했다. 광고 가격을 내려 신생 사업 부문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다.
- 넷플릭스는 작년에 소비자들 대상으로 월 6.99불의 광고 지원 옵션을 출시했다. MS는 넷플릭스를 대신해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제공해주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

- 관계자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MS 외에도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또한 넷플릭스와 MS의 계약 재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금리인상으로 카드·모기지 등 가계 대출에도 압박"**

**가계 자금조달 비용부담 커질 듯..."나중의 큰 고통 대신 지금 겪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 올림에 따라 미국 가계에도 상당한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예금계좌 등의 금리도 오르겠지만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등 각종 가계 대출 금리도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CNBC방송은 이날 "작년 3월 이후 11번째인 이번 금리 인상은 여러 형태의 가계 대출과 관련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가계에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